

제주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성

강창화¹⁾ · 정광중²⁾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at Seonheul Gotzawal in Jeju

Kang, Chang-Hwa¹⁾ · Jeong, Kwang-Joong²⁾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상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유적들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2~2013년 현지조사를 통해 선흘곶자왈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숯가마 80기(돌숯가마 2기, 1회용 숯가마 78기)를 비롯하여 숯막(움막) 50기, 노루팅(석축함정) 7기, 경작지 20개소, 물텅(통) 10개소가 주를 이루며, 이외에 신앙 유적(신당 및 포제단) 2개소와 동굴 유적 1개소도 포함된다. 이들 유적은 인위적으로 축조하여 사용한 시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 선흘리 주민들의 생활관련 유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역사문화유적이 특정지구에 대거 밀집된 곳이 말하자면 단위생활지구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돌숯가마 1기를 비롯하여 1회용 숯가마 12기, 숯막 1기, 경작지 6개소, 머들, 머들 + 경작지 경계 돌담 41개소, 노루팅 3기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은 조선시대 말~일제강점기 이전 시기에 축조하여 사용한 것이 있는 반면, 조선시대 말~1960년대 중반까지, 혹은 해방 이후~1960년대 중반 사이에 축조하여 사용해진 유적들도 있다. 그리고 경작지는 1894년 이후부터 1950년대 말 사이에 주민들이 직접 개간하여 사용해진 유적이다. 이처럼 단위생활지구에는 사용 시기가 서로 다른 역사문화유적이 밀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선흘리 주민들의 생활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셋째로, 선흘곶자왈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유적들 중에서 대표성과 원형 유지의 정도를 고려하여 5종류의 유적을 세부 측량과 함께 실측하였다. 이들 유적의 측량과 실측을 통해 유적별 단면도, 평면도 및 측면도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 유적의 실측 자료는 앞으로 제주의 여러 곶자왈에 분포하는 동일한 유적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선흘곶자왈, 역사문화유적, 돌숯가마, 1회용 숯가마, 숯막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piece together and understand the distribution of the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in Seonheul Gotzawal, Jeju, and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remains.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n-site inspection(2012~2013) discovered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in Seonheul Gotzawal in Jeju. The historical sites mainly include 80 charcoal kilns, 50 charcoal burner's sheds(hut), 7 stonework traps(snare) for wild roe deer, 20 units of farmlands, 10 ponds(well), as well as two religious remains(shrine and community altar) and one cave site. The obvious fact is that the historical sites are the living heritage of the residents of Seonheul-ri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the remains have been used at different times depending on when they were established. Second, the particular district where the historical and

1) 주저자,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Director of Research, Archaeological Institute of Jeju), kchanghwa@hanmail.net

2)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사회과교육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ongkj@jejunu.ac.kr

cultural sites were concentrated within Seonheul Gotzawal can be considered to be the living unit district. It was discovered that the district had one stone charcoal kiln(the charcoal kiln made of stone), 12 disposable charcoal kilns(the charcoal kiln to be discarded after using one time), one charcoal burner's shed, six units of farmlands, Meodle(the pile of stones and pebbles stacked at one place, which were useless for farming), 41 units of stone walls that served as boundaries of Meodle and farmlands and three stone work traps(snare) for wild roe deer. The historical remains include those established in the period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before the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those established and used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mid-1960s or during the period after liberation to the mid-1960s. The farmlands were also historical sites that were cultivated and used by the residents from 1894 to the late 1950s. A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mains used in different periods are concentrated in the living unit district, the district serves as critical evidence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one side of the life of the residents in Seonheul Gotzawal. Third, the study actually surveyed and measured five types of remains on the spot in detail, given the representativeness and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s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distributed in Seonheul Gotzawal. This holds great significance as the research revealed the section, floor plan and side view with measurements and actual survey of the historical sites for the first time. The actual measured values of the historical sites are also considered as an important basis for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ame types of historical remains distributed in many Gotzawal areas in Jeju.

Key words: *Seonheul Gotzawal,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Stone Charcoal Kiln, Disposable Charcoal Kiln, Charcoal Burner's Shed*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제주에는 크게 네 지역에 꽃자왈이 분포한다.¹⁾ 그 중에서도 선흘꽃자왈은 제주도 동부지역의 조천-함덕 꽃자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지구 중 하나이다. 선흘꽃자왈은 제주도내의 다른 꽃자왈과는 달리 마을 중심부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거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참나무 수종이 우점하고 있으며, 동시에 농경에 유리한 평지도 곳곳에 분포하는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로부터 선흘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농업활동이나 임산자원의 획득을 위해 널리 이용해 왔다. 따라서 선흘꽃자왈은 선사시대를 포함하여 근·현대 시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임산자원의 획득이나 농업활동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꽃자왈은 1960년대 이후 삼림 보호 정책과 생활경제의 변화 등으로 대부분 숲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지적하자면, 꽃자왈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이 새삼 환기되는 시점에서 꽃자왈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성도 더불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선흘꽃자왈은 1990년대 초 꽃자왈 내부를 관통하는 숲 탐방로가 개설된 이후에 힐링 체험이나 생태학습과 관련된 공간적 특성이 알려지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탐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선흘꽃자왈의 생태적 가치와 특성은 도내 외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 내의 여러 꽃자왈에 탐방 코스가 개설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현시점에서는 선흘꽃자왈이 제주도내의 숲길 체험이나 생태 탐방의 대명사격으로 교육적·관광적 기능까지도 담당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상황과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의 여러 꽃자왈 중에서도 선흘꽃자왈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와 특성을 규명하

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필자들은 앞으로 선홍꽃자왈을 시작으로 제주도 내의 다른 곳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까지 제주 곳자왈에 대한 연구는 송시태(2000)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10여 년에 걸쳐 분야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전용문 외(2012)는 기존의 초목과 수목경관에 중점을 둔 곳자왈의 개념을 용암의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성인과 관련지어 새롭게 정리하였고, 김대신·김봉찬·송시태(2008)와 신정훈(2012), 이정미 외(2012) 등의 연구는 제주 곳자왈이 다양한 희귀식물의 생태적·입지적 특성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장용창·이찬원(2009)은 제주 곳자왈 내의 습지 분포와 유형적 특성을 밝힌 연구로서 주목된다. 이상의 연구가 주로 자연과학적 측면의 연구 성과라고 한다면, 정광중(2004: 2012)과 송시태 외(2007)의 연구는 인문과학적 측면에서 제주 곳자왈의 민속과 생활경제의 특성을 다룬 연구로 대비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제주도민들이 과거로부터 곳자왈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에 대한 실상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정광중 외(2013)의 연구는 선홍꽃자왈을 이용한 주민들의 숲 생산활동에 역점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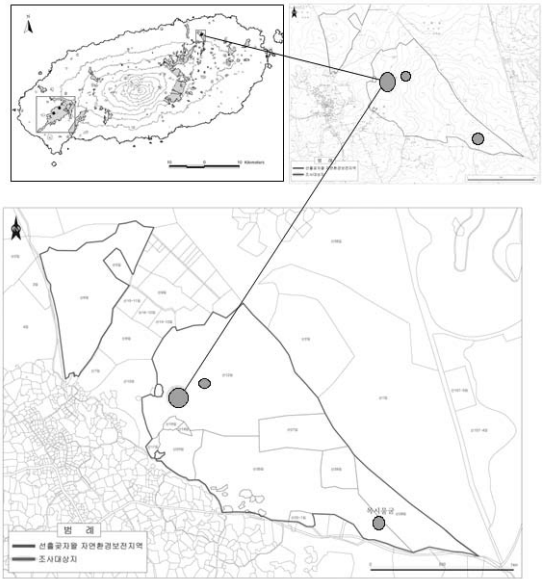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홍꽃자왈에 분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종류별 역사문화유적의 특성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곳자왈을 다룬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유적의 분포나 입지적 특성 그리고 개별 유적에 대한 특징을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가 앞으로 곳자왈 연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하나의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홍꽃자왈 내에서도 역사문화유적의 분포를 직접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그림 1). 본 연구의 조사

중심 지구는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서귀포 상호동 소재)가 관리하는 시험림 지구이다. 현지조사에 앞서 2012년 3월 초순 해당기관의 허락을 받고, 먼저 2012년 3월 중순~9월 하순까지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유적의 위치와 종류, 스케일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 4~8월에 걸쳐 대표성을 띠는 개별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실측과 측량을 시도하였다.

조사·확인된 개별 유적 중에서 고고역사 관련 유적의 사용 시기와 활용 등은 기존에 발간된 고고학 연구 보고서와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근현대 시기의 유적은 마을주민들의 청취조사와 동행답사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특히 선홍꽃자왈 내부가 숲으로 뒤덮여 있는 삼림지구이기 때문에 숲가마와 야생 노루의 포획을 위한 노루터(석축함정) 등 일부 유적의 위치는



자료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자료(2012)에 의해 작성

<그림 1> 연구대상지역(선홍꽃자왈 내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 ● : 실측대상)

현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나아가 개별 유적들 중 대표성을 띠는 유적에 대한 측량과 실측작업, 지도화 및 유구 도면 작성 작업 등은 제주고고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힌다.²⁾

2.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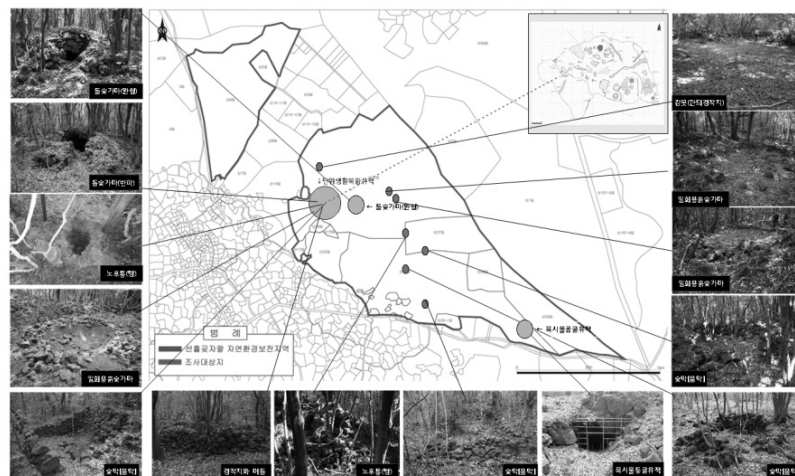
선흘곶자왈 내부에서는 크게 6가지 유적, 즉 숲 생산, 주거, 농경, 사냥, 음용수, 신앙유적이 확인되었다. 먼저 숲 생산관련 유적은 약 80여기로 이들 중 장기적으로 사용된 돌숯가마(곰숯가마) 2기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1회용 숯가마(흙숯가마) 78기가 확인되었다(표 1). 주거유적은 선사시대의 사냥과 관련된 일시적인 거주지인 동굴유적(바위그늘집자리) 1기를 비롯하여 숲 생산이나 농경활동에 따른 숯막(움막, 임시거처) 50여기가 확인되었다. 농경과 관련된 농경유적(농

경지)은 20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야생 노루 사냥과 관련된 노루텃(통)은 모두 7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음용수 유적은 마소용 연못과 음용수 연못 등을 합해 10개소, 신앙과 관련된 유적(마을 신당과 포제단)도 2개소가 확인되었다(그림 2).

<표 1> 선흘곶자왈 내에서 확인된 유적과 수량(2013년 8월 현재)

유적명	수량	비고
돌숯가마	2	일명 곰숯가마
1회용 숯가마	78	일명 흙숯가마
숯막(움막)	50	임시 주거지
노루텃(통)	7	석축함정
농경유적	20	산전, 강못
음용수 유적	10	물텃(인공못, 자연못)
신앙유적	2	마을 신당 및 포제단
동굴유적	1	동굴 주거지
합 계	170	—

자료: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자료: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그림 2> 선흘곶자왈 내 주요 역사문화유적의 분포 현황

2013년 8월 시점에서 보면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유적은 약 18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앞으로 세부조사가 진행될수록 선흘곶자왈 내의 역사문화유적의 수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사문화유적들 중에서도 일부 유적은 비록 활용 시기를 달리하지만, 특정 장소에 밀집현상을 보이면서 단위생활과 관련된 군집유적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3. 선흘곶자왈 내 역사문화유적의 실측조사에 따른 구조와 특성

1) 돌숯가마(곰숯가마)의 일반적 구조와 특징

선흘곶자왈의 돌숯가마는 곰숯가마라고도 칭하는데, 외견상 가장 큰 특징은 가마의 벽체에서 천정까지 모두 크고 작은 현무암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이다. 가마 축조에 필요한 돌은 선흘곶자왈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제주의 전통 가마는 대개 용기를 생산하는 용기가마를 일컫는데, 이 경우에는 용기 제작에 필요한 양질의 점토를 확보하기 쉬운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숯가마의 축조에는 곶자왈 내부에 널려있는 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선흘곶자왈 내부에서도 돌이 많은 장소는 돌숯가마의 입지로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돌숯가마의 축조방식은 먼저 지면을 정리한 다음 돌로 벽체와 천정을 만들었다. 가마의 기본적인 구조는 평면적으로 원형에 가까우며 출입구(아궁이)→소성실→배연구→보조 배연구 등을 갖추고 있다. 돌숯가마의 목탄 공정과정은 가마 축조→소성실 원목적재→점화→탄화(炭化)→정련→소화(가마내)→목탄 반출로 이어진다. 돌숯가마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출입구(아궁이)]

숯가마 전면 중앙에 위치하며, 외부 작업 공간과

소성실로 드나들며 원목을 재우고 목탄을 꺼내는 부분이다. 또한 소성실에 원목을 재우는 작업이 끝나면 불을 지피는 아궁이 역할도 한다.

[소성실(燒成室)]

숯의 재료인 원목이 탄화되는 곳으로, 탄화실(炭火室)이라 부를 수 있다. 소성실 내부에 원목을 적재하는 방법은 가마의 뒤쪽에서 쌓기 시작하여 출입구 쪽으로 쌓는다.

[배연구]

숯이 탄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기를 배출하는 부분으로 소성실 끝 가마벽 상단에 원형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제주의 다른 지역인 안덕면 서광리에서 확인된 숯가마의 경우는 소성실에서 빠져 나가는 흡입구, 연도(煙道) 및 배출구로 구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선흘곶자왈의 돌숯가마는 이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숯가마의 입지나 조건에 따라서는 배연구의 형태와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보조 배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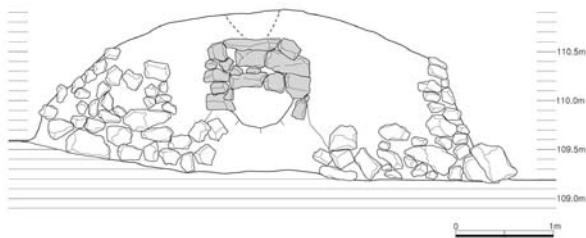
가마의 좌우측벽 상단이나 천정 중앙 부분에 배연구의 규모와 비슷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으며, 배연구의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 돌숯가마(1호)의 구조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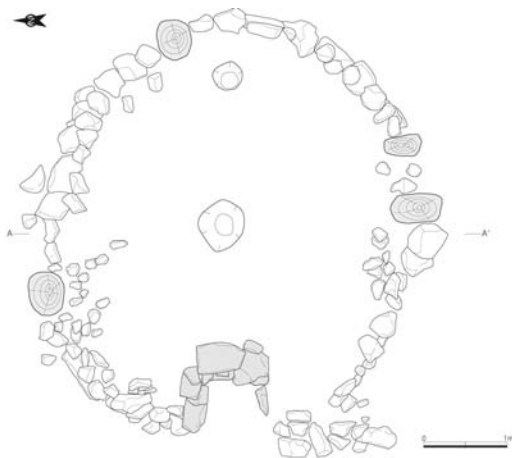
선흘곶자왈에서 확인된 돌숯가마(1호)는 종가시나무가 울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위생활지구 에 자리하는 또 다른 돌숯가마(2호)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다. 돌숯가마(1호)가 입지한 지리적 위치는 북위 33°30'52.2", 동경 126°42'57.3"이다. 돌숯가마(1호) 바로 앞에는 숯 제조 작업공간과 임시거처인 숯막이 자리하고 있다. 소성실의 아궁이는 정북향을 향해 있다.

조사시점에서 볼 때 돌솥가마(1호)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장축이 550cm이고 단축이 530cm로 전체적으로는 돔(dome) 형태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림 3, 사진 3-1). 이 돌솥가마는 지면을 약간 굴착하여 축조되었으며, 출입구 앞에는 600×200cm 크기의 타원형 솥 제조 관련 작업장이 있다.³⁾ 폭이 약

70cm 정도의 출입구는 좌우에 장방형의 현무암을 3~4단으로 쌓은 후 그 위에 편평한 현무암을 올렸는데(사진 3-2), 조사시점에서는 입구에 부엽토 등이 쌓여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성실 바닥은 현 지표면 보다 낮지만 소토(燒土)가 깔려 있는 상태이다.



<사진 3-1> 돌솥가마(1호) 전경



<그림 3> 선흘곶자왓 내 돌솥가마(1호) 실측도



<사진 3-2> 출입구(아궁이)



<사진 3-3> 소성실 내부 벽체



<사진 3-4> 후면 배연구



<사진 3-5> 상부 보조 배연구

벽체는 돌을 이용하여 돔 형태로 쌓은 후 내부 틈새에는 점토를 두텁게 발라 내화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벽체에는 점토를 발랐던 장인들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돌솥가마(1호)는 돌솥가마(2호)와 마찬가지로 지면에서 약 60cm까지는 비교적 큰 돌로 쌓고 그 위로는 보다 작은 돌을 세로로 쌓으면서 천정 부분과 연결시켰으며 돌과 돌 사이에는 점토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사진 3-3). 출입구와 대치되는 가마의 벽체 후면부에는 직경 약 55cm의 배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도의 연도 시설 없이 직접 소성실과 연결되어 있다(사진 3-4). 보조 배연구는 소성실 천정 중앙부에 두고 있다(사진 3-5). 그리고 돌솥가마의 외부 가장자리에는 비교적 큰 돌을 3~4단으로 둘러 가마의 외벽을 보호하고 있다. 소성실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약 160~

170cm로 실측되었다.

돌솥가마(1호)는 형태와 구조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돌솥가마와 관련된 작업 공간(솥제조 작업장)과 솥막(임시 거주지), 저장고로 추정되는 석축시설까지 함께 세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선흘곶자왓 내 솥 생산 공간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유구(遺構)라 지적할 수 있다.

3) 단위생활지구 내 군집유적의 분포실태와 종류별 특성

(1) 단위생활지구 내 군집유적의 개요

선흘곶자왓 내에서도 단위생활지구 군집유적은 다양한 역사문화유적들이 비교적 작은 공간적 범위에 밀집되어 있는 유적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다(그림 4). 단위생활지구 내 군집유적의 실태조사는 정밀측량기기(GPS 기기, 광파 측량기 등)를 사용하여 전체 부지와 대표 유적에 대해 평판 측량을 실시하였다. 선흘곶자왓 내 단위생활지구의 군집유적은 크게 2개로 분리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림 중 남동 지구(산 12번지, 임야)의 서쪽 편에 입지해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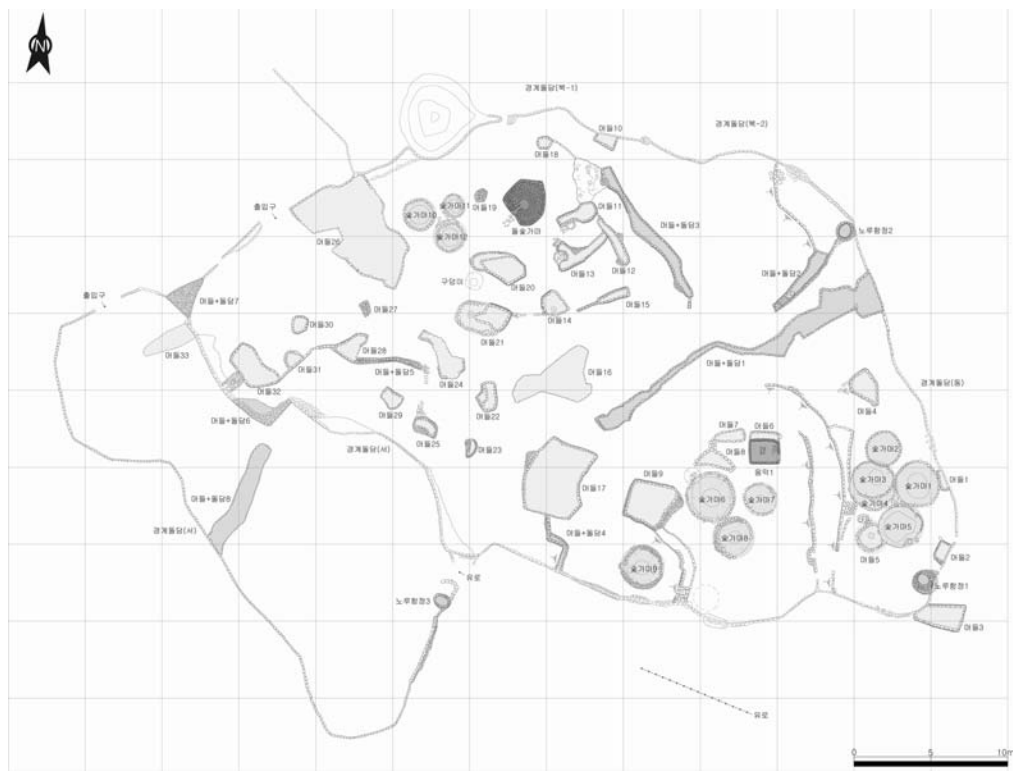
단위생활지구는 면적을 측량한 결과 약 7,500㎡(2,500평)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단위생활지구는 전체가 하나의 경작지(산전)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돌솥가마 1기를 비롯해서 1회용 솥가마 12기, 솥막 1기, 노루탕 3기, 머들 33기, 머들+경작지 경계 돌담 8기가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유적이 입지하는 장소 자체는 경작지와 중복하여 사용된 것이다. 경작지는 경계선을 이룬 돌담을 참고할 때 대략 6~7개로 구분해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 단위생활지구내 유적들의 사용 시기는 전체적으로 조선시대(19C) 이후 1960년대 중반 경까지 해당되며 유적에 따라 사용 시기가 다를 수 있었다. 이들 단위생활지구 내의 군집유적으로부터 약 100여m 떨어진 장소에는 공동 음용시설인 물탱(통) 1개도 위치해 있다.

<표 2> 단위생활지구 내 군집유적의 분포 현황

유적 종류	수 량	입지·분포 특징
돌숯가마(곰숯가마)	1	출입구(아궁이)는 일부 파손
1회용 숯가마(흙숯가마)	12	원형의 가장자리에 돌담으로 존재
숯막(움막)	1	방형의 숯막으로 비교적 규모가 큼
머들* 또는 머들 + 경작지 경계 돌담	41	경작지(산전) 내의 여러 곳에 분포
노루텃(통)	3	경작지의 가장자리에 입지

* 머들은 경작지나 임야 등에서 불필요한 돌을 한 곳에 모아 쌓아올린 돌무더기를 말함

자료: 현지조사에 의해 작성



자료: 제주고고학연구소(2013년 10월) 작성

<그림 4> 단위생활지구 내 유적의 분포 및 배치도

이러한 단위생활지구 내에 입지한 군집유적의 분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유추할 수 있다. 먼저 하나는 단위생활지구는 선흘리 주민들의 곡물 생산과 숯 굽기 등 경제활동이 적극적으로 행해진 공간이란 점이며,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계(契)’와 같은 품앗이 조직을 통해 누대에 걸쳐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단위생활지구 내에서는 적어도 6개소 이상의 작은 경작지(산전)가 확인되었는데, 당시 이곳에서는 보리, 조, 피, 산디(육도)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했던 곡물을 주로 재배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작지의 조성 여부는 경계용 돌담과 머들의 존재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금도 그것들의 분포 밀도는 높게 나타난다. 경작지 경계 돌담은 자신이 개간한 경작지와 다른 사람이 개간한 경작지를 구분하기 위해 쌓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동일한 소유자의 경작지라도 경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작지의 중간 지점에 분할용 돌담으로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마을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돌숯가마와 노루팅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히 조선시대 말경에 만들어진 돌숯가마는 해방 이후에 숯막 용도인 일시적 휴식처나 거주지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선흘곶자왓 내 단위생활지구는 선흘리 주민들이 몇 세대에 걸쳐 일정 기간 동안 농경활동을 포함한 숯 굽기와 야생 사냥 등 생산과 수렵 활동의 무대였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장소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선흘곶자왓 내 단위생활지구의 군집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선흘리 주민들이 곶자왓을 배경삼아 삶을 영위했던 생활사와 문화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흘곶자왓 내 단위생활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역사문화유적들이 한정된 장소 내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지만, 이들 유적들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유적들은 조성 시기나 사용 시기가 중첩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 유적들의 구체적인 조성 시기와 용도는 <표 3>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 단위생활지구 내 돌숯가마(2호)의 구조와 특징

2013년 10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선흘곶자왓 내 돌숯가마는 모두 2기가 조사·확인되었다. 2기 중 1기는 단위생활지구 내에 위치하며, 그리고 거의 완형으로 남아있는 다른 1기(1호)는 북동쪽 약 150m 지점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단위생활지구 내의 돌숯

<표 3> 단위생활지구내 유적의 종류에 따른 사용 시기와 용도

유적의 종류	사용 시기	용도	비고
돌숯가마(곰숯가마)	조선시대 말~일제강점기 이전	백탄 생산	원형의 1기는 약 150m 떨어진 별도 지구에 위치
1회용 숯가마(흙숯가마)	해방 이후~1960년대 중반	검탄 생산	단위생활지구에는 12기가 분포
숯막(움막)	조선시대 말~1960년대 중반	일시적 휴식처 혹은 일시적 거주지	방형 숯막 1기가 있으며 내부에는 화덕을 설치
경작지(산전), 머들, 머들 + 경작지 경계 돌담	1894년(갑오년) 이후~1950년대 말	보리, 조, 피, 산디 등 재배	경작지는 6개소 이상, 머들은 33개, 머들과 경계용 돌담으로 연결된 형태는 8개
노루팅(통)	조선시대 말~일제강점기 이전	야생 노루의 포획	단위생활지구에만 3기가 경작지 가장자리에 위치

자료: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12a), p.39를 토대로 재조사(2013년 7월)에 의해 수정 작성

가마를 2호로 명명하고, 앞서 서술한 돌솥가마(1호)와 구분지어 그 구조와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돌솥가마(2호)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위생활지구 내에서는 북쪽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1회용 솥가마와 머들 또는 경작지를 일정한 크기로 구획하는 머들+돌담이 입지해 있다. 조사시점에서 보는 돌솥가마(2호)는 출입구(아궁이)를 포함하는 전면부가 많이 파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정 부분에 종가시나무 등 10여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후면부와 측면부도 일부 파손돼 있는 상황이다(사진 4-1). 따라서 현재는 솥가마의 벽체와 천정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원래는 출입구, 소성실, 배연구, 보조 배연구 등을 갖춘 전형적인 돌솥가마라 할 수 있다. 선흘리 마을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 돌솥가마는 후대에 이르러 곳자왈에서 생업활동을 할 때 잠깐씩 쉬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솥가마의 좌우측에 쌓여 있는 4겹 정도의 3단 석축시설은 단위생활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생업활동을 할 때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나중에 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유에는 트여있는 앞부분을 돌로 막아 비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돌솥가마(2호)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지만 출입구와 앞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다. 가마의 바닥은 지면을 정리하여 만들었는데 직경은 약 400cm 정도이다. 벽체는 하단부에 장방형의 현무암을 2~3단으로 40~60cm 정도 쌓은 후 벽체를 급격히 좁혀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치형의 천정을 만들었다. 벽체의 하단부는 일정한 크기를 지닌 장방형의 돌로 축조한 반면, 상단부와 천정 부분은 서로 다른 크기의 돌을 사용하였고 틈새에는 작은 돌을 켜켜이 끼워 넣었다. 그리고 천정 부분에는 돌과 돌 사이에 점토를 보강하여 내구성을 높이려 하였다.

돌솥가마(2호)의 바닥과 천정의 높이는 약 140cm이다. 그리고 소성실 끝 가마벽의 높이는 약 60cm이고 내경(內徑) 15cm, 외경(外徑) 30cm 정도의 배연구

구를 두고 있는데, 별도의 연도 시설 없이 소성실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조 배연구는 정상부가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벽체의 두께는 하단부가 45~65cm로 두꺼운데 반해 천정 부분은 25~30cm 정도로 다소 얇게 축조되었다. 가마의 내벽을 이루는 돌의 일부는 표면이 유리질화 되어 있고 벽체의 보강재인 점토가 소성돼 있는 상태로 보아, 이 가마는 내벽에 점토를 바르지 않고 솥을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4-2). 가마의 내벽을 점토로 마감하지 않은 상황은 가마 전체의 내구성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돌솥가마(2호)의 사용 기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진 4-1> 단위생활지구 내 돌솥가마(2호) 전경



<사진 4-2> 돌솥가마(2호)의 내부 벽체

돌숯가마(2호)는 비록 많이 파손된 상태이기는 하나 돌숯가마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안겨준다. 현시점에서는 천정 부분에 나무들의 자생으로 파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밀한 발굴을 통해 정확한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1회용 숯가마(흙숯가마)의 일반적 특징

1회용 숯가마도 목탄을 생산하기 위해 축조된 가마로서, 원목을 적재한 후에 돌과 흙으로 벽체와 천정을 만드는 특징을 보인다. 이 숯가마는 제탄과정에서 모두 끝나면 숯을 반출하기 위해 완전히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원형은 남아 있을 수 없다(사진 5). 다만 숯가마를 설치했던 장소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마저도 지면이 삭평되고 교란될 경우에는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1회용 숯가마는 지면을 정지하거나 반 지하 형태로 파서 소성실 바닥을 만든 후, 그 위에 목탄 재료(원목)를 적재하게 된다. 나무를 세워서 적재할 경우에는 직경 약 200~800cm 정도의 원형에 가까운 석렬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가마 벽의 하부가 된다. 원목의 적재가 완료되면 가장자리에 어른의 허리 높이만큼 돌담을 쌓고, 그 위로부터 흙을 짓이겨 발라 벽체와 천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원목의 적재와 숯가마의 형태가 완성되면, 아궁이로 불을 지펴 연소시킨 다음 완전히 탄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흙으로 만든 천정과 벽체를 부수면서 목탄을 꺼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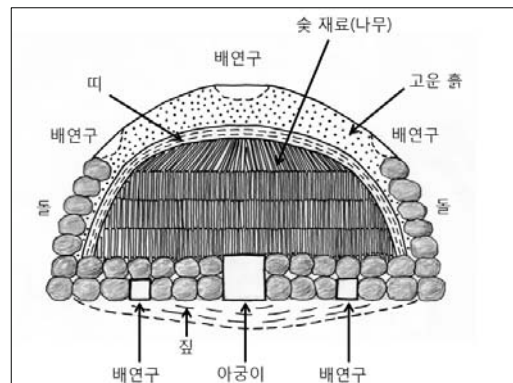
선혈꽃자왈 내에 남아 있는 1회용 숯가마는 대부분 원형(圓形)의 형태를 띤다. 소형 숯가마의 경우는 약 200~300cm이고, 대형 숯가마의 경우는 700~900cm에 달하는데 숯가마를 축조했던 지면에 보통 1~2단의 원형 석렬만 남게 된다. 1회용 숯가마의 외부 형태와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선혈리 주민들로부터 청취조사를 통해 작성한 정광중 외(2013, 43)의 연구결과가 참고 된다. 1회용 숯가마는 석축시설과

함께 작은 웅덩이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부의 웅덩이는 숯가마의 축조나 혹은 마지막 공정의 불기를 없애기 위하여 다량의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1회용 숯가마는 대부분 한번 사용한 후에 폐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한번 사용했던 가마터를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가마의 규모를 축소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⁵⁾



<사진 5> 단위생활지구 내 1회용 숯가마 전경



자료: 정광중 외(2013), p.43.

<그림 5> 1회용 숯가마의 복원도

(4) 단위생활지구 내 1회용 숯가마(9호)의 구조와 특징

단위생활지구 내에 분포하는 1회용 숯가마는 12기이다. 이들 중에서 중규모에 해당하는 숯가마(9호, <그림 4>의 하단부에 위치)의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1회용 숯가마의 구조와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로 실측하고 조사한 1회용 숯가마는 거의 완형(完形)에 가까운 숯가마로서 수리적인 위치는 N 33°30'55.7", E 126°42'51.7"로 파악된다.

실측 조사한 1회용 숯가마 주변에는 방형의 머들과 경계용 돌담이 둘러져 있다. 또 동쪽에는 3개의 1회용 숯가마가 자리 잡고 있다. 이 1회용 숯가마의 원형 석렬 주변으로 가마 벽체에 사용했던 돌들이 7~8겹 이상으로 높이차를 두고 중첩되어 있다(그림 6, 사진 6-1). 내부 바닥면의 깊이는 100cm 이상으로 선홍꽃자왈 내의 1회용 숯가마 중에서는 가장 깊은 편에 속한다(사진 6-2). 이 1회용 숯가마 전체의 장축 방향은



<그림 6> 단위생활지구 내 1회용 숯가마(9호)의 실측도



<사진 6-1> 실측한 숯가마(9호)의 전경



<사진 6-2> 실측한 숯가마(9호)의 바닥면

N-S(정남북)이고, 외부 직경은 730cm(장축)×650cm(단축)이며 내부 직경은 440cm(장축)×300cm(단축)이다. 더불어 이 1회용 숯가마는 거의 1960년대 말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벽체로 활용된 돌들이 재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데다가 내부에서는 신선한 숯의 일부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실측 조사한 1회용 숯가마 주변에는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머들과 경작지 경계 돌담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재사용으로 인한 파손행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 숯막(옴막)의 일반적 특징

숯막의 사전적 정의는 숯을 굽는 곳에 지은 옴막(炭幕, charcoal burner's shed)이다. 따라서 숯막은 숯을 굽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을 취하는 공간이다(정광중 외,

2013: 50). 선흘곶자왓의 숯막의 사용 시기는 조선시대 말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로 추정된다. 특히 휴식이나 식사시간에는 내부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를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화덕시설을 갖춘 숯막도 있다.

선흘곶자왓 내에 숯막을 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숯을 제조하는 시기가 대체로 농한기인 11~5월 사이이지만, 그 중심기간은 12~3월 사이로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겨울철이고, 동시에 숯 제조 과정은 1~2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많을 때에는 무려 7~10일이 소요되어 반드시 휴식공간이나 수면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 장소에서 많은 양의 숯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5명이 한 팀(동아리)을 이루어 야간작업까지 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로 휴식과 수면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대부분의 숯막은 돌담으로 4~5단 혹은 6~7단 높이로 쌓아 올리고 돌담 위에는 나뭇가지를 엮기설기 엮은 후 다시 그 위에 띠와 억새, 잡초 등으로 엮어 맨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형은 크게 원형계(원형, 장방형)와 방형계(방형, 장방형)로 나눌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숯막을 근거로 하면 원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원형이든 방형이든 숯막 내부의 크기도 대형, 소형, 중형 등 다양하다. 이것은 숯을 제조할 때 1팀을 이루는 동아리 멤버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3: 73). 숯막은 면적이 넓을수록 지붕의 형태가 온전한 가옥의 형태에 가까워진다. 그것은 면적이 넓을수록 내부 중앙부에다 통나무 1~2개를 세우고 다시 주위를 돌아가며 작은 나뭇가지를 연결함으로써 2면이나 4면의 지붕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숯막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입구 시설]

숯막의 출입구 시설은 폭이 크게는 70cm, 작게는 40cm로 매우 좁다. 이렇게 폭이 좁은 이유는 나무로 된 판자 형태의 문을 닫았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만

든 간이 형식의 출입문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출입구 시설에 사용한 돌은 대형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모서리를 잘 맞추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정성들여 쌓은 흔적이 역력하다.

[벽체 돌담]

숯막의 벽체 돌담은 곶자왓 내부에 널려있는 30~50cm 크기의 현무암을 이용하여 보통 낮은 곳은 4~5단, 높은 곳은 7~8단까지 쌓아올린 형태를 취한다. 벽체의 일부는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암반 노두면을 활용하거나 암반에 의지하여 돌담을 쌓은 형식도 보인다. 또한 일부의 사례에서는 한쪽으로 암반이 움푹 팬 천연 암곡(바위그늘)에 의지하여 쌓기도 했다.

[내부 공간]

숯막의 내부는 조리·취사 공간(또는 작업 공간)과 침실공간으로 구성된다. 조리과 취사공간은 주로 내부 중앙부분이며 이곳에 화덕이 자리한다. 침실공간은 조리·취사 공간보다 30~50cm 정도 높으며, 잔돌을 부석(數石)하여 상면을 평평하게 다져 놓는다. 일부 숯막에서는 외부에서 불을 땀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어 온돌구조를 갖춘 숯막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취사·조리 공간과 침실공간을 별도로 분리하는 형태의 칸막이 돌담을 두른 숯막도 있다.

[화덕 시설]

화덕 시설은 숯막의 중앙에 위치하며 형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즉 내부 중앙에 직경 20cm 정도의 자연석 6~7매를 타원형 모양으로 서로 연결하여 만드는 위석형(圍石形) 화덕과 얇고 납작한 박석(薄石)을 사용한 장방형의 수혈식(竪穴式) 화덕이다.

[지붕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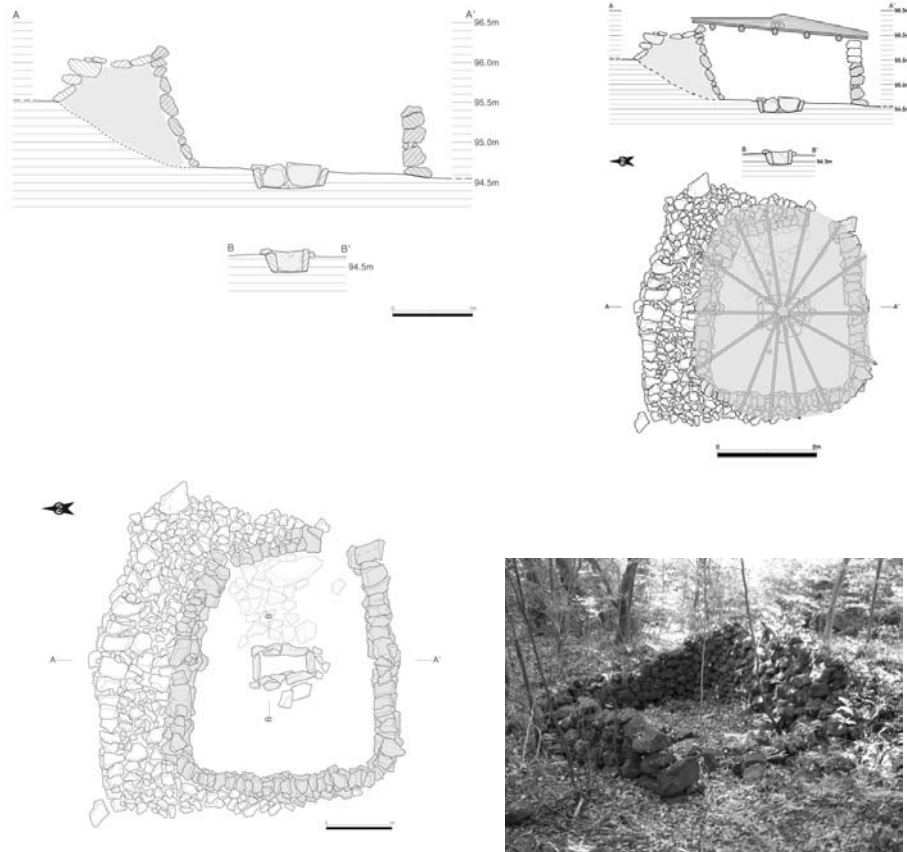
현재 숯막의 지붕 시설은 남아 있지 않다. 숯막 내부에 중심 나무기둥을 세우고, 석축 벽에 기대어 직경 10~20cm 정도의 잔 나뭇가지를 가로와 세로로 연결·

고정한 후 지붕틀(간이 서가래)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억새를 촘촘히 엮어 지붕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단위생활지구 내 숯막(1호)의 구조와 특징

이번에 실측 조사한 숯막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방형 숯막이다(그림 7). 이 방형 숯막은 단위생활지구 내 동쪽 중앙부에 자리한다(그림 4). 이 숯막의 수리적 위치는 N 33°30'55.7", E 126°42'52.1"이고, 규모는 장축이 420cm, 단축이 410cm이며 내부의 규모는 330×300cm이다. 이 숯막은 전체적으로 북고남저의

경사면을 활용하여 만들었는데, 북쪽은 머들 자체를 벽체로 활용하였다. 숯막의 장축은 정남북 방향이고, 출입구는 남동쪽 모서리에 두고 있으며 폭은 60cm 내외이다. 숯막의 내부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장방형의 화덕 시설이 확인되는데 그 크기는 70×30cm 정도이다. 숯막으로 사용된 벽체의 돌담은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으며, 특히 북쪽 머들을 이용한 벽체 돌담은 높이가 150~160cm에 이르고 너비는 100~120cm로 확인된다(사진 7).



<그림 7> 단위생활지구 내 숯막(1호)의 평단면도 (좌측 상하) 및 복원도(우측 상중)

<사진 7> 단위생활지구 내 숯막(1호)의 전경

(7) 노루텅(노루통, 석축 함정)의 일반적 특징

석축 함정인 노루텅은 제주도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시설로서, 야생노루를 잡기 위한 노루용 덫이다. 현재까지 선혈꽃자왈 내에서 발견된 노루텅은 모두 7개소이다. 노루텅은 선혈꽃자왈 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현무암을 재료로 삼아 야생노루가 빠지도록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노루가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면적(0.3~0.4평)을 확보한 후에 돌담을 높고 길쭉하게 쌓아올린 형태를 취하게 된다(그림 8).

가장 전형적으로 잘 남아 있는 노루텅은 깊이가 170~200cm이며, 쌓아올린 돌담을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쪽은 6단, 높은 쪽은 9단으로 축조돼 있다. 노루텅은 대개 지형의 높낮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설치하였는데, 경사면이 높은 위쪽에서 뛰며 먹이를 쫓던 야생노루가 경사면이 낮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고안한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전형적인 노루텅은 바닥면이 넓고 윗면이 좁은 복주머니 모양(上狹下廣)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루텅의 좌우측으로는 보통 외담이나 겹담이 길게 이어져 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b: 53-54). 결국 이것은 꽃자왈 내의 경작지 안으로 노루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청취조사에 의하면, 이 노루텅은 돌쫓가마가 존재했을 때 사용된 시설물로 그 시기는 191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a: 77-79).

(8) 단위생활지구 내 노루텅(3호)의 구조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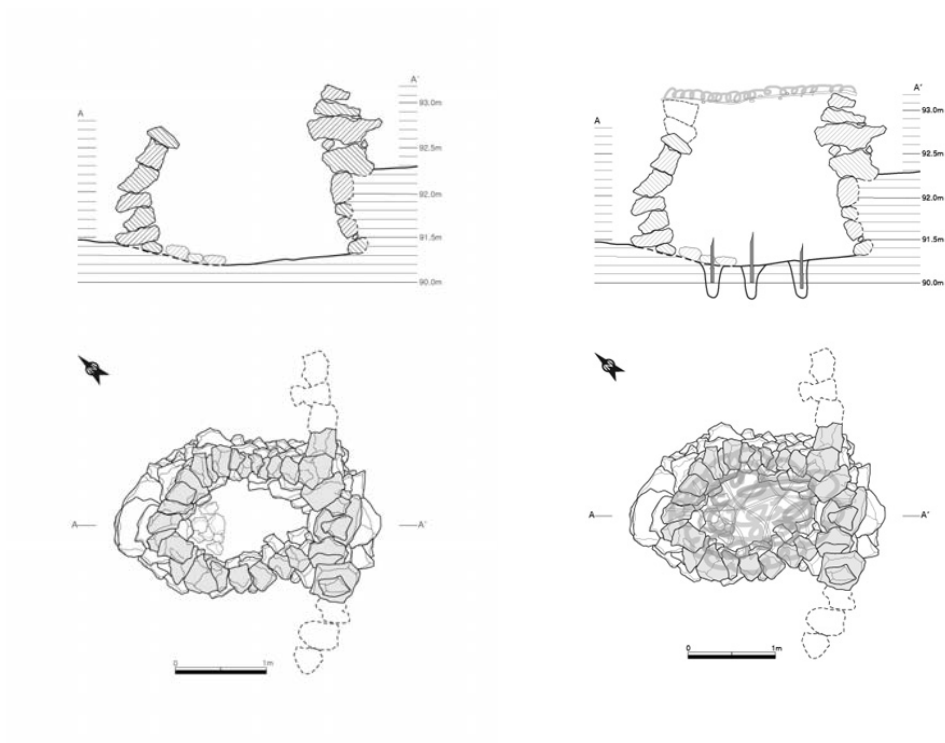
이 노루텅이 자리한 수리적 위치는 N 33°30'55.7", E 126°42'51.7"이며, 시설이 축조된 방향은 동서 장축이고 경계용 돌담은 남북 장축으로 파악된다. 노루텅의 전체 규모는 장축 길이 295cm, 단축 길이 150cm, 함정 깊이는 200cm이다. 그리고 상부의 너비는 170×120cm, 바닥의 너비는 200×150cm이며, 바닥면이 상부면 보다는 넓은 복주머니 형태로 축조되어 있다(그림 8).

실측·조사한 노루텅은 선혈꽃자왈 내에서도 가장 원형대로 잘 남아 있는 사례이다. 이 노루텅은 용암 노두를 따라 겹담이 길게 남북 장축으로 약 20m 축조되어 있고, 그 돌담 석렬의 북쪽 도입부로 떨어지는 경사면에 축조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을 이루며 상부에서 하부로 급격히 내려가면서 복주머니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루텅의 축조에 사용된 돌담은 직선으로 6~9단을 쌓아 올렸다. 노루텅의 바닥은 돌을 평평하게 깔아 놓아 부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노루텅은 서쪽의 상부에 2~3단 정도의 돌담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루텅과 접한 남북 장축의 돌담도 거의 2m의 폭으로 맞물려 쌓고, 동시에 노루가 함정 쪽으로 쉽게 올라설 수 있도록 2단 정도의 돌담을 단(段)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노루텅은 상부면에 나무 잔가지를 얹고 그 위에 신선한 송악 줄기를 덮어 놓으면, 노루가 먹이활동을 하다가 함정 안으로 빠지도록 구안한 것이다. 그리고 노루텅 안에는 몇 군데 흙을 만든 후 날카로운 대나무를 꽂아 놓음으로써 한번 빠진 노루가 더 이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사진 8).

(9) 경작지(산전)와 머들, 경작지 경계 돌담의 구조와 특징

① 산전

선혈꽃자왈 내에서도 화전농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 가능한 산전 개간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청취조사에 따르면, 경작지인 산전의 개간은 대체로 갑오개혁이 일어난 1894년에서 1950년대 말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전의 개간에는 제주식 특수 농기구인 파비와 팽이 따위의 농기구가 주로 이용되었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a: 61). 꽃자왈은 대개 토심이 얇기 때문에 돌을 파내고 경지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지 위로 나오는 돌들을 모아 우마 출입 및 경계용 돌담을 쌓거나 또는 개간한 산전 내의 일정장소에 돌들을 적치하여 머들을 만들었다. 당시 산전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주로 보리, 조, 피, 산뽕(육도) 등이었는데, 산전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수확량은 매우 적었다.



<그림 8> 단위생활지구 내 노루팅(3호)의 실측 평면도(좌측 상하) 및 가상 복원도(우측 상하)



<사진 8> 단위생활지구 내 노루팅(3호)의 상부(좌)와 측면(우) 모습

선흘곶자왈에서는 자급자족에 부족한 양을 생산하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산전 개간은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지형조건을 이용하며 행해졌다. 단위생활지구 내에는 경작지인 산전과 개간 당시 쌓아놓은 머들이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단위생활지구 내에 개간된 산전은 대형 머들과 경계용 돌담으로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머들은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규모와 형태가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마을주민들로부터의 청취조사에 따르면, 선흘곶자왈 내의 경작지는 드문드문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사진 9, 사진 10). 그 이유는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농경지로 조성할 장소에는 작물 재배를 위한 최소한의 토양이 있어야 하고, 또한 경작에 필요한 음용수나 농업용수를 구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흘곶자왈 내에서도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한정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흘곶자왈 내의 경작지는 크게 산전과 강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산전은 대략 1894년(갑오년)~1950년대 말까지 농가단위로 조성하여 보리, 조, 피, 산디 등을 재배하였으며, 강뚝은 적어도 1940~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벼를 재배하기 위해 적당한 습지를 선택하여 조성되었다.

② 머들

머들은 앞서 정리한 것처럼, 제주도의 경작지나 임야 등에서 불필요한 돌을 한 곳에 모아두거나 쌓아올린 것을 말한다.⁶⁾ 머들은 해당 경작지나 임야 등에서 일정한 장소를 차지하며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사진 9> 단위생활지구 내 경작지



<사진 11> 단위생활지구 내 원탐형 머들



<사진 10> 경작지로 이어지는 우마차 도로



<사진 12> 단위생활유적지구 내 다면체형 머들

이때 불필요한 크고 작은 돌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손에 의해 이동되어 한곳에 모인 것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머들도 제주도민들이 험난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농업 경관 요소임에 틀림없다(정광중, 2008: 17).

선흘곶자왈 내의 머들은 기본적으로 경작지(특히 산전)를 조성한 장소에 분포한다. 선흘곶자왈 내의 머들은 그것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1m 높이의 낮은 것에서부터 5~7m 높이의 높게 쌓은 것까지 확인되며, 그 형태도 원탑형(또는 원뿔형)을 시작으로 직사각형이나 다면체형, 부정형을 이루는 것까지 온갖 형태가 등장한다(사진 11, 사진 12). 특히 선흘곶자왈 내의 머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머들이 위치하는 장소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작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작지의 가장자리 즉 다른 경작지와와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이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3: 78).

③ 경작지 경계 돌담

경작지 경계 돌담은 선흘곶자왈의 일반적인 경계용 돌담과는 달리, 농업 생산활동을 위한 경작지(산전, 강못)의 조성과정에서 가장자리에 두른 돌담을 가리킨다. 경작지 경계 돌담은 기본적으로 보리, 조, 피, 산티 등을 재배하는 산전용 돌담과 습지를 이용하여 쌀(논벼)을 생산하는 강못용 돌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진 13, 사진 14). 산전용 돌담은 비교적 낮게 쌓은 반면 강못용 돌담은 높게 쌓아올렸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이들 돌담용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현무암의 자연석으로 매우 각이 진 돌들이다. 강못용 돌담의 일부는 돌담 재료를 부분적으로 각을 제거하여 쌓아올린 흔적도 보인다. 그만큼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강못의 경우는 일단 물이 고이는 습지가 아니면 논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마을주민들 간 경쟁도 치열했기 때문에 자신이 개간한 강못의 경계용



<사진 13> 경작지 경계 돌담(산전용)



<사진 14> 경작지 경계 돌담(강못용)

돌담도 정성을 들여서 쌓은 것으로 해석된다(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2a: 62-64,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13: 82). 이처럼 쌀을 생산하던 강못의 존재는 선흘곶자왈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문화유적이라 할 수 있다.

(10) 목시물굴 동굴유적의 실체와 특징

용암동굴인 목시물굴은 비교적 소형 동굴로 선흘리 산 26번지(임야)에 위치하고 있다. 선흘곶자왈 내에서 보면, 목시물굴은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리적 위치는 N 33°30'18.7", E 126°43'46.1"로 파악된다. 이 동굴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며, 동굴의 주 출입구는 북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굴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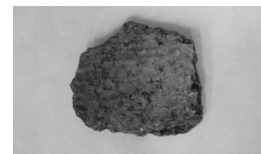
구의 규모는 너비가 약 160cm, 높이가 약 125cm 정도이다. 동굴 유적이 형성돼 있는 곳은 입구에서 채광이 가능한 약 5m 정도 내외의 범위인데, 이 지점은 동굴 전체로 볼 때 공간이 비교적 넓은 곳에 해당된다. 동굴유적이 형성된 내부 천정의 높이는 대체로 1.2~1.6m 정도이고, 입구에서부터 안쪽으로 진입할수록 점차 낮아지는 지형을 취하고 있다(그림 9).

목시물굴 내의 유물은 입구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내부 가장자리에는 낙반석이 분포한다. 동굴내부를 세심히 살펴보면

퇴적은 채광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지점에는 잘게 부서져 형성된 패각 층과 대형의 전복 패각 등이 확인된다. 이 동굴에서 중요한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압인점렬문(押引點列文) 토기편과 청동기시대의 직립구연토기, 탐라시대의 직갈색 경질토기이며, 이외에 조선시대의 백자편과 용기편 또 근현대의 용기편 등도 확인되었다(사진 15). 확인된 유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신석기시대와 탐라시대의 유물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9> 목시물굴의 측면도와 유적지의 측면도(상)와 평면도(하)



<사진 15> 목시물굴 입구 모습(상)과 유물의 노출 상태(중), 신석기후기 점렬문도기편(하)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선홍곶자왈 내에서도 국립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는 시험림 내 역사문화유적의 분포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유적들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먼저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2012~2013년간 현지조사를 통해 선홍곶자왈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솟가마(돌솟가마 2기, 1회용 솟가마 78기) 80기를 비롯하여 솟막 50기, 노루텃(통) 7기, 경작지(산전·강뚝 포함) 20개소, 물텃(통) 10개소, 신당 및 포제단(신앙유적) 2개소, 동굴유적 1개소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 유적은 인위적으로 축조하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를 살았거나 현재를 살아가는 선홍리 주민들의 생활 관련 유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선사인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했던 동굴유적만큼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선홍곶자왈 내에서도 역사문화유적이 특정지구에 대거 밀집된 곳이 말하자면 단위생활지구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돌솟가마 1기를 비롯하여 1회용 솟가마 12기, 솟막 1기, 경작지 6개소 이상, 머들, 머들+경작지 경계 돌담 41개소, 노루텃 3기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돌솟가마와 노루텃은 조선시대 말~일제강점기 이전 시기에 축조하여 사용해왔고, 솟막은 조선시대 말~1960년대 중반까지, 또 1회용 솟가마는 해방이후~1960년대 중반 사이에 축조하여 사용해온 유적이다. 그리고 경작지(산전·강뚝·머들·경작지 경계 돌담 포함)는 1894년 이후부터 1950년대 말 사이에 개간하여 사용해온 유적이다. 이처럼 단위생활지구에는 사용 시기가 서로 다른 역사문화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선홍리 주민들의 생활사적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셋째로, 선홍곶자왈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유적들

중에서 대표성과 원형 유지의 정도를 고려하여 5종류의 유적을 세부 측량과 함께 실측하였다. 이들 유적은 돌솟가마(2호) 1기를 비롯하여 1회용 솟가마(9호) 1기, 솟막(1호) 1기, 노루텃(3호) 1기, 목시물굴 유적(동굴유적) 1개소이다. 이들 유적의 측량과 실측을 통해 해당 유적별 단면도, 평면도 및 측면도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실측자료는 앞으로 제주의 여러 곶자왈에 분포하는 동일한 유적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미 정광중 외의 연구(2013)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돌솟가마(곰솟가마)의 지방 문화재로의 추진과 함께 단위생활지구 내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복원 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홍곶자왈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실측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여러 곶자왈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유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 곶자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은 물론이고 곶자왈의 자연·역사·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사 자료관 건립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사) 본 연구는 2012~2013년에 걸쳐 진행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위탁연구과제에서 일부를 요약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2차에 걸쳐 연구원으로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준 현문필 선생(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전문위원), 김종찬 선생(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사), 김용덕·윤중현·오원홍 선생(이상, 제주고고학연구소), 강성기 선생(제주대학교학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김찬수·최형순 박사 두분의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주

- 1) 꽃자왈의 개념과 제주도 내 분포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송시태(2000), 정광중(2004: 2012), 전용문 외(2012) 등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꽃자왈 내부의 유적 안내에는 고○기(57세)님이, 청취조사에서는 박○수(58세, 이장), 고○봉(76세) 및 부○룡(75세)님이 해 주셨고, 또 유적의 실측과 측량, 지도화와 도면 작성에는 김용덕, 윤중현, 오원홍선생(이상,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강성기선생(제주대학교 박사과정)이 담당하였음을 밝힌다.
- 3) 선홍꽃자왈 내에서 숲 제조를 위한 작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드러나는 장소는 단 1군데에 불과하다. 이 숲 제조 작업장은 앞에서 정리한 돌숫가마(곰숫가마, 1호)의 아궁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숲 제조 작업장의 형태는 단순히 숫가마 정면에 구덩이를 파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깊은 지점은 약 50~60cm이고 얇은 지점은 10cm 내외이다.
- 4) 1회용 숫가마의 축조와 숲 생산과정은 정광중 외(2013)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 5) 가령 <그림 4>에서는 한번 사용했던 1회용 숫가마를 다시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숫가마(3호, 4호)를 확인할 수 있다.
- 6) 제주어 사전(2009: 352)에 따르면, ‘돌무더기’라 풀이하여 ‘머돌’ 또는 ‘머돌’과 같은 뜻이라 적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문헌

- 강창화 외, 2006, 한라산의 역사 · 유적, 한라산총서(3권), 한라산생태문화연구원.
- 김대신 · 김봉찬 · 송시태, 2008, “제주도 꽃자왈지대의 식물상”, 한국자연보호학회지 2(2), 91-103.
-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이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시태 · 김효철 · 김대신 · 류성필 · 좌승훈, 2007, 제주의 꽃자왈,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민속박물관.
- 신정훈, 2012, “제주고사리삼(고사리삼과) 서식지의 환경특성-개체군동태와 환경처리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태학적 반응-”,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 신정훈 · 정현모 · 김해란 · 김정호 · 신동훈 · 유영한, 2012, “멸종위기 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입지와 식생구조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습지학회지 14(1), 35-45.
- 장용창 · 이찬원, 2009, “제주도 꽃자왈 숲,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한국습지학회지 11(1), 99-104.
- 전용문 · 안용산 · 류춘길 · 강순석 · 송시태, 2012, “제주도 꽃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예비 연구결과”, 지질학회지 48(5), 425-434.
- 정광중, 2004, “꽃자왈과 제주인의 삶”,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33, 41-65.
- 정광중, 2008, “북촌리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따른 돌문화 관련자원의 형성과 배경”, 한국사지리지학회지 18(1), 7-26.
- 정광중, 2012, “제주의 숲, 꽃자왈의 인식과 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2-2, 11-28.
- 정광중 · 강성기 · 최형순 · 김찬수, 2013, “제주 선홍꽃자왈에서의 숲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지리지학회지 23(4), 37-55.
- 제주특별자치도, 2009,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역사문화진흥원(사), 2010,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 선홍1리, 도서출판 각.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사), 2012a, 꽃자왈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조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사), 2012b, 꽃자왈의 역사유적 현황조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사), 2013, 꽃자왈의 보전 및 이용 기술 개발: 꽃자왈의 역사유적분포 · 실측조사 및 역사문화자원 평가 · 활용 기술개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제주 서광리 숫가마 발굴조사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투고일 2014. 02. 06
수정일 2014. 03. 26
확정일 2014. 03. 27